

# 축산농가 '피트모스' 도입 현장점검

(수생식물이 퇴적돼 만들어진 유기물질)

## 이오수 경기도의회 의원 수분 조절·악취 제거 탁월

경기도에서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한 새로운 방안 마련에 나섰다. 축산 악취로 인한 농가와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축산 악취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하는 상황에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축산농가에 피트모스를 지원키로 한 것이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국민의힘, 수원9) 의원은 11일 김포시에 위치한 축산농가를 방문해 민원을 청취하고 '피트모스'를 도입하기 위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올해 본예산 심사에서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해 기존 톱밥 대신 '피트모스'를 시·군별 축산농가에 지원해야 함을 지속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지난달 제373회 임시회에서 진행된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의 2024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피트모스' 도입 시범농가를 지정해 현장 실증을 통해 '피트모스'의 효과적 활용 방법 등을 실험



이오수 경기도의원은 11일 김포시에 위치한 축산농가를 방문해 민원을 청취하고 '피트모스'를 도입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했다. (사진=경기도의회)

하고 경기도형 우수 사례를 확산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현장점검에 나선 이 의원은 축사 시설 및 가축 분뇨 처리 현황을 점검하고, 악취 관련 민원 등 축산농가의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사)전국농우협력 박태순 김포시지부장과 경기도 축산

정책과장, 김포시 축산과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향후 '피트모스' 도입 시범농가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핀란드 국외연수 이후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한 '피트모스' 도입을 지속 요구해 왔다"며 "올해는 적은 예산이나마 실제 농가에 '피트모스'를 보

급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 축산진흥센터의 연구를 통해 '피트모스'가 악취 저감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검증됐지만 현장 적용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며 "현장 실증을 통해 경기도 축산환경에 적합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활용 방법 등을 추가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향후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한 경기도형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해 농장주와 지역 주민 모두 행복한 축산환경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피트모스'는 논지의 식물이 습지 바닥에 퇴적돼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부식된 것으로 통기성과 보수력이 뛰어나 축사바닥의 수분 조절과 축분 퇴비의 부숙 기간 단축 등 악취 저감에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다.

축산 악취 개선 및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 중인 경기도는 올해부터 기존 축사에 제공하던 수분조절제(톱밥)의 일부를 '피트모스'로 전환해 지원할 계획이다.

김인창 기자

## 의회 단신

### 인천시 지방재정 운영의 문제점 파악

#### 인천시의회 예결전문위원회

인천시 재정만의 분석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개선 및 발전 방향을 찾는 길라잡이 보고서가 나왔다.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회(예결전문위원회)는 최근 올해 첫 번째 '지방재정 분석보고서'를 제작·배부했다.

예결전문위원회는 인천시 지방재정의 분석을 통한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지방재정 분석보고서를 제작 배부하고 있으며

보다 실질적인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제 선정에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 분석 보고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을 중심으로 한 '2023년 인천시 지방재정 분석보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한 '지방교육재정 현황 및 전망 분석'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을 비롯한 '인천시 출산지원정책 분석' △인천시 지역사랑상품권(인천e음) 소비패턴 분석을 통한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운영의 내실화 방안' 등 총 4가지 주제를 선정해 작성했다.

김동현 기자

### 현실적인 경제금융교육 조례 제정 추진

#### 안명규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국민의힘, 파주5) 의원은 11일 파주상당소에서 현실적인 경제금융교육의 시행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경기도의회 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임시회를 통해 진로교육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

나 실용적이고 균형 잡힌 교육을 시행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해 조례를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경제금융교육 관련 사업 대다수가 금융사기·전세사기 등에 대한 계획을 담고 있지 않아 시대와 동떨어져 있는 등 문제에 따른 것으로 일관성 있는 계획 수립과 현실성 있는 정책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인창 기자

# 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시급"

## 박운서 연천군의회 의원 본회의 자유발언서 강조

박운서 연천군의회 의원은 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했다. 박 의원은 불과 몇 주 전에도 백학면 백령리에서 주택화재가 발생해 이재민 4명이 마을회관에 대피해 생활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연천군은 주택화재 피해주민들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긴급복지제도를 통해 국·도·군비로 규정과 기준에 따라 지원을 하고 있으나 소득기준 등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온전히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첫째로 주택화재 피해주민들을 위한 임시 주거 시설이나 긴급 생활비를 제공하는 등의 긴급 생계지원 체계를 마련해 피해주민지원을 도모할 수 있고, 둘째로 화재 예방 교육을 강화해 주민들에게 화재 예방에 대한 지식과 안전

수칙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화재 발생 예방 및 화재 발생 시 대처 방법교육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되는 점을 언급했다.

셋째로 주택 화재로 인해 집을 잃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재건을 위한 최소한의 자금 지원 혹은 전문가의 건설 지원 등의 방안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화재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지역주민들에게 심리 상담 등의 정서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지원을 도와 생활 부적응 등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 나아가 지역을

떠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주민 지원은 인간적인 연대며 이런 재난 상황에서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고 고통을 함께 나누며 손길을 뻗어야 한다고 밝히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군의 적극적인 지원과 더불어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제284회 연천군의회(임시회)의 5분 자유발언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 회의록검색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성태 기자



인천 부평구의회 의원들이 임시회 회기 동안 각종 현장 방문을 통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사진=인천 부평구의회)

### 인천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행정복지위 의원

#### 임시회기 중 활동 나서

인천 부평구의회 의원들이 임시회 회기 동안 각종 현장 방문을 통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1일 부평안전체험관과 대형폐기물 처리 대행업체(썬현대에코텍)를 현장 방문,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도시환경위원회는 부평안전체험관에서 지진, 지하철 사고 등을 체험하고 시설을 둘러보며 현안 사항을 논의했고 대형폐기물 처리 대행업체인(썬현대에코텍) 고잔사업소를 방문, 대형폐기물이 성상별로 잘 처리되

고 있는지 직접 확인했다.

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도 이날 부평남부체육센터를 방문, 기관 운영 사항에 대해 설명 듣고 하자 보수 현장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는 등 의정활동을 펼쳤다.

부평남부체육센터는 부평구 남부권역 최초 종합체육시설이자 남부권역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지난해 8월 개관했다.

구의회 관계자는 "구의 의정을 책임지고 있는 의원들이 현장 방문을 통해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해 나갈 것"이라며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체육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웅 기자

## 식용견 사육 금지되니 이제 염소 농가서 악취

## 안성시의회·축산정책과 축종별 악취등급 간담회

안성시의회는 축산정책과와 함께 11일 축종별 악취등급의 단계조정을 논의하기 위한 면담을 의장실에서 진행했다.

이번 면담에는 안성시의회 의장 안정열 의원을 비롯해 최호섭·이중섭 의원, 이상훈 전문위원, 이혜빈 정책지원

관, 그리고 축산정책과의 이효석 상생축산팀장과 강석환 주무관 등 총 8명이 참석했다.

축염소연구회는 빈 우사에서 염소를 기르기 위해 염소의 악취등급을 기존 3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 의원은 우사에서 염소를 불법적으로 기르는 사례를 언급하며 등급 조정을 통해 현 상황을 합법화하는 동시에 염소 농가 증가에 대비한 선제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 이 의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마을 내 협동조합을 통한 염소 사육 방안을 제안했다.

축산정책과는 인근 주민들의 피해 가능성, 염소의 방목 등 더 큰 불법행위의 가능성, 그리고 돈사의 이전을 지원한 선례를 들어 염소 사육 지원의 어려움을 표명했다. 그러나 오는 2027년부터 식용견 사육이 금지됨에 따라 견사에서 염소를 사육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안정열 의장은 "개사육금지법이 통과

되면서 개의 보신문화가 없어지고 있고 대체육인 염소산업이 돼지나 소의 형태처럼 대량 사육방식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성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천안시와 부여군에서 시행 중인 축종별 악취 등급 규정과 염소 사육 운영 실태에 대한 자료를 축산정책과에 요청했다. 이는 안성시의 축산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주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면밀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대안을 찾을 예정이다.

채종철 기자

어르신들을 위한 도심속의 편안한 쉼터

은성휴요양원은 몸의 건강은 물론 마음의 건강까지 신경쓰겠습니다.

다들! 언젠가 노년복귀하기...

쾌적하고 마음편한 노후를 위한 곳... 부천 최고의 요양시설

입소관련 상담문의 032-683-3030

은성휴요양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수도로 202, 은성프라자 2층 은성휴요양원(도당동 43-3)  
홈페이지 : http://www.eshyo.com